



광복절 만세삼창 1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탈권위·소통... 나라다운 나라로

취임 100일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탈한 소통과 과감한 탈 권위로 국민과 함께 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소통 드라마는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막을 올렸다. 외국 정상들까지 초청해가며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거행한 과거의 화려한 취임식 대신 국민들의 셀카 요청에도 빠짐없이 응했다. 대통령이 사전에 약속된 통선을 벗어나면서 경호관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이다. 고급 방탄차량 앞뒤로 수 대의 특수 경호 차량이 수행하고 경찰차가 겹겹이 에워싼 모습만을 봤던 국민 입장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이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났지만, 그날 아버지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탓에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김소형씨가 추모 글을 읽던 중 울음을 터뜨리자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김씨가 추모사를 마치고 퇴장하려 하자 문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로 올라가 김씨를 감싸 안으며

스스럼없는 스킨십에 국민 전폭 지지...경제·안보 등 정책 뒷받침돼야

토닥여줬다. '각본에 없던' 이 장면은 민심을 흔들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통상 4부 요인이 자리했던 대통령 옆자리에 지리 사고로 우측 발목을 잃은 공상군경인 김경렬씨와 2년 전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당시 다친 김정원·하정원 국가 유공자가 앉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 원수로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던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피해자 조순미씨의 손을 잡고 허리를 숙여 그의 눈을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탈권위적인 모습은 대통령 업무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참모들과 오찬을 마치고서 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경내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기술직 직원들과 3000원짜리 점심을 같이하기도 했다.

회의 석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에 앞서 직접 커피를 타 마시고, '계급장·반야스기·결론'이 없는 '3무(無) 회의'를 지향했다. 참모들과의 수시 소통을 위해 취임 사흘째부터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옮겼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직접 인사를 발표하는 모습은 국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임명장 수여식을 할 때면 인사 당사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가 하면 배우자까지 불러 축하 꽃다발을

직접 안겼다. '춥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대통령의 소통과 탈 권위 행보는 불통과 권위로 상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어 결과적으로 개혁정책을 더욱 탄탄히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소통과 탈 권위로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정책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지하지 않았어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대통령의 말·말·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주요 발언.

▲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에 힘쓰겠다고)

▲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 (5월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통화에서)

▲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것이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 “받아쓰기 필요 없다. 대통령 지지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의무다” (5월 2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면서)

▲ “대통령으로서 명령인데 (소방대원이) 신혼여행 갈 수 있게 소방서장님이 휴가 내주시죠?” (6월 7일 용산소방서 방문 당시 서장에게 한 소방대원이 신혼여행을 갈 수 있게 휴가를 내줄 것을 제안하면서)

▲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6월 23일 현무 2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 국방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인사하러 공화국 나올 것 없다. 꼭 나와야 할 사람만 나오면 된다” (6월 26일 미국 출국길 인사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 “남북관계에서도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7월 2일 미국 교포들에게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연홍수

광주·전남 현안, 문 정부 국정운영 대거 포함 배경 전해철·김경수 물밑 지원 ‘한몫’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들이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포함된 배경에는 전해철 의원과 김경수 의원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다.

우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현안 행거에 나섰다. 후문이다. 목포 출신인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보이지 않게 호남에 대한 물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 공약을 직접 행거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기획위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호남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 의원의 호남 행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며 “호남 지역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반영에도 전 의원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광주·전남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광주·전남 등 호남 현안들이 상당한 건수를 받았는데 김 의원이 청와대의 의중 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힘을 실어줬다.

특히, 김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를 비롯해 5·18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안 사업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김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고, 대부분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핵 도발 억제·대화... 남북관계 풀어야

문 정부 향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권위 탈피 행보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인사와 대북정책 등 몇 가지 부문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남은 과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역대 정권 초기마다 불거진 인사난맥은 문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인사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란표절)을 어기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안경현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업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중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했다. 이 인사 난맥은 야당과의 협치를 무너뜨린 단초가 됐다.

또 외교·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자칫 미·중 양국 모두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양국간 관계회복도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되도록 주요 4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의 일단 도발과 극단적인 북미 간 대치 심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석달 전보다 한층 더 엄중해진 상황이다. 북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설 역지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핵 실험을 막고 남북협력의 문도 다시 열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1번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을 제시했다. 정부는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수사가 전 정부와 대결 구도로 이어질 경우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어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 여부가 일자리 정책 성패를 좌우하게 될 거란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장 생활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특전

자녀 취미지도사, 국가공인부동산경영관리사, 부동산실업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여 수료 후 모인제 일정 후 평생지도(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마감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안: 3시~5시 아간: 7시~9시 / 매주(수요일) 아간: 7시~9시 / 매주(목요일) 아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화요일 오전반: 2017. 9. 5.(화)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9. 9.(토) 09:10 (특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 9. 7.(목) 09:10 (중급반) 금요일 오전반: 2017. 9. 8.(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9. 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위탁기회 부여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위탁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모집기간: 2017년 8월 25(수) ~ 2017년 9월 7일(목)
·교육기간: 2017년 9월 7(목) ~ 2017년 12월 14(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geong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7년 8월 1(화) ~ 2017년 8월 25(일)
·교육기간: 2017년 9월 5(화) ~ 2017년 12월 22(일)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순천대학교) 농협 643-01-007060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ilelong.sunch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